

어느덧 100%이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를 전면으로 도입하던서 또 다시 민중을 이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식민지화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김대중 차기 당선자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화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정권도 우리 민중의 삶을 밝혀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거시기 김대중 당선자의 출신당인 '국민회의'에서는 <주부표'를 잡으면 선거에서 이긴다!> 는 구호아래 주부를 집중 공약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선거에선 '주부표' 때문에 실패했다는 분석으로 만들어진 여성정책이 얼마나 올바른 여성관을 가질 수 있을지하는 의문을 끼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정리해고가 전면 도입되면서 정리해고 일 순위로 낙인찍히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삶은 우리의 투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끝끝로 억압된 민중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 여성민중이 있다면 전국 투쟁대오의 모범으로, 한층권의 모범으로 우리 여학생들의 옹골찬 도약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1,2월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앞서 필히 98년의 상을 개략적으로나마 합의해야 할 것 같아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 각 지역별 총화를 통해 더 구체화하고 탄실히 해나가는 것은 총노선을 만들어 가는 과정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98년 전여대협 의 핵심과제

### 1. 사상적 과제

**무엇보다도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이 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간부들에게 여학생운동이 무엇이나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여학우의 처지에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그래서 여성이라는 특수한 처지가 만들고 있는 모순을 깨어나가야 하는 요구가 있고 또한 그것은 사회변혁 운동이 선행 되어야할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 구체적인 상을 내어올 수 없고 사상적인 중심은 있으되 그것을 대중과 함께 풀어갈 구체적인 이론이나 투쟁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학우를 끊임없이 만나고 실천을 통해 검증된 실천주의 사상을 정립하고 그것은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없이 배를 저어갈 수 없듯이 사상 없는 운동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한 폐단의 후과로 지금에 서로 다른 이론적 정견들이 난무하며 여학우들의 단결을 지해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던 성 단로들이 여학우들의 진정한 자주적인 삶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몇몇의 잠담거리로 전락시켜가고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복원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여성문제는 사회구성체로서의 위치로 양산되어지는 문제이기때 사회와 격리되어져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여학우들이 사회의 방관자가 되고 사회에서 소외된다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고 여학우들의 인간적인 삶을 또 다시 요원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건준위 6년에 전여대협 3기의 역사를 꼼꼼히 분석하고 지향점을 명확히 하닌서 선배들의 맘과 투쟁의 피로 만들 이진 조직을 사수 강화 혁신해 넘시다.

**학생운동내 여학생운동의 역할은 명확히 정립하여 여학생운동가에게는 여학운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그리고 끝까지 학생회 임원등 우리 운동가에게는 인정받고 존중 받으며 조직광화에 투쟁에 에루어 넘시다.**

대부분 단위 여학일꾼들이 운동대오 일꾼들에 의해 힘들어하고 지치면서 한해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단위 일꾼들의 몰인정함과 무지함으로 치부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일꾼들도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상의 근본적인 양성장소였던 가정과 봉건적인 학교교육의 두리에서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풀어서 딱지 얽은 그러한 사상을 쉽게 떼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일꾼의 헌신적인 노력과 어머니의 품성으로 품어안아 하나씩 얽여진 고리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 고리부터 풀어나가면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만들어 봅시다.

## II. 조직적 과제

### 기층 단위를 건설하고 강화시켜 봅시다.

여학생운동은 이제 건준위 6년 전여대협 4년을 걸어오면서 1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처음에는 단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5년 이후 민중중심 사상을 틀어쥐고 있는 학생회가 부활하게 되고 개인의 지주적인 삶을 쟁취하기 위해 선차적인 문제로 되는 사회변혁과 조국의 자주화는 청년 학생의 역할을 청사진으로 그려주었고 그의 조직인 학생회의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더불어 여학생운동 또한 전체 모순의 해결 없이는 여성해방도 없음을 인식하고 청년 여학도의 역할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외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집단적인 힘만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과 여학생회(부)의 제기배경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단위가 별로 없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기층 여학생회가 깨지고 있고 과 여학생회(부)가 건설되는 단위에서도 올바른 관점으로 제기해서 과여학생회를 건설하는 대학이 드뭅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어라고 꼭 집어서 말 할 수는 없지만 과학생회가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가 여학우들에게는 따르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여학우 대중의 스스로의 깨우침에 의해 자생되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구성에서부터 명확하게 위상을 정립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이 있는 튼실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별로 총화 하면 기층의 강화를 위한 창발적인 자구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모범총화와\*발굴로 여러 단위의 모범을 전국단위의 모범으로 만들어봅시다.

전남대- 과여발 특위 (보론에 명시하였습니다.)

경북대- 단여 건준위

## III. 대중 투쟁적 과제

### ① 학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성폭력 외직 제정) < 보론에서 구체적으로 ... >

대학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의 사례를 들다치면 아마 몇 권의 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이 언론에 공론화 되고 반짝 이슈화되었었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수에 의한 성폭행,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 학생들간의 성폭행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학내 성폭력은 우리 여학우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폭력 학칙제정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농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성폭력 또한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벌규정을 분명하게 문서화함으로써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양이나 강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견인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폭력의 그늘에서 우리 여학우들을 해방시켜 내고 학원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각 대학에서 성폭력을 제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설문작업이나 자보선전작업을 통해 여학우들의 공분을 만들어내고 필요성을 힘어했던 단위도 있고 결집대의 결속을 비약 세질했다고 합니다. (히나 계

조정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 또한 98년 한해 핵심사업으로 상정하고 있는 단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착취제정 투쟁은 우리 석공인들의 투쟁의 결과물로 승리의 확신을 내어올 수도 있는 수위 있는 투쟁입니다. 각종 선대할 단체들중 최대 자치권 투쟁, 확실히 자주화 운동으로 승화 시켜낼 수 유력한 투쟁입니다.

### ㉠ 97년의 흐름에서 정신대 투쟁을 형성하여 조국통일 투쟁에서 폭발적인 투쟁으로

아직도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정신대 문제를 하고자하는 의지는 나뉘지않고 있었지만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해내고 제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며 투쟁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국의 자주화는 조국 통일의 첫 번째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H통일 투쟁과 함께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중간총화와 맥을 다시 형성해내고 적극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갑시다.

### ㉡ 해고 영 순위가 여성노동자입니다.

‘여성우대기업’ 상을 받은 회사가 경력많은 여직원 대부분을 정리해고 시켰다고 합니다. 은밀히 개별면담을 통해 사직서를 강요하기 때문에 공론화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구조’가 여성들을 정리해고의 희생 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누구하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 노동 가치가 낮은 단순 업무 분야에 몰려 있고 자본의 논리로 보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여성 노동력이 일차적인 정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깊은 성역할 의식에 의해 여성을 대체 인력쯤으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해고 전면 도입 후 또 다시 여성은 고통분담의 제일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마냥 우리 여성의 삶을 죄어오고 여성들간의 경쟁만 부추기던 생존경쟁장인 취업전선에서 무사히 통과해도 우리 여성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근본적인 여성관의 변화와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여성도 우리 사회에서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 ㉢ 강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97년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여대협이 없었지만 학교 단위에서 누구보다 권리로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했던 천안 단국대 일꾼들이 있고 고대 조치원 간부들도 있습니다. 또한 남여대협은 시기별로 계단식 투쟁으로 적극화하여 엽서 쓰기 운동도 하면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경여대협의 경북대에서는 투쟁본부의 형식이고 꾸러 걸 권부가 집중하는 투쟁을 만들어내었고 안동대에서는 강의실선전을 생활화하면서 투쟁했었습니다. 부경여대협은 97년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 문제의 심각성과 투쟁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아주 꼼꼼한 준비로 그 투쟁을 조직화해 내었습니다.

이처럼 각 단위의 모범적인 투쟁이 끊임없었으나 적들의 탄압으로 전국단위의 큰 힘으로 묶어내지 못하게 하였고 그 성과를 전국 백만학우와 공유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부패한 정권에 의해 열사가 탄생되고 있는 정세는 우리 여학일꾼을 혼란하게 하면서 광범위한 우리 대중과 이 투쟁을 함께 하기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중앙상임위 회의를 통해 제출된 투쟁을 힘있게 전개시킬 것입니다.

## 1,2월 사업계획

### I. 1,2월 정세의 중요한 흐름(총론)

- 각 단위의 조직복구 시기입니다. 4기 전여대협 의장님을 세워내고 각 지역별 의장님을 세워내어 4기 중앙상임위의 구성을 시급히 해야하고 단위의 간부 일꾼들도 각 개인의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낼 수 있는 적절한 자리에 배합 배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단위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튼실히하는 첫 시공을 잘 하십시오.
- 여학생 일꾼의 조직 사상성을 백방으로 높여내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 98년 새내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새내기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특히 올 새내기는 논술고사 때문에 한겨레 21정도는 고3들의 필독자료였다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성문제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새내기들이 많고 또한 무분별하게 유입된 TV문화는 다학문화의 막연한 환상과 커리우던의 환상을 가지게 합니다.  
여대생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대학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여학일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II. 조직사상적 영역

**방중 시기라 간부들의 사상성을 높여낼 수 있는 이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러하다고 해서 내부에서 간부들끼리만 토론하고 논의한다면 안되었습시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상투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하겠습시다. 또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총화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 ▶ 세로모임을 통해 총화하고 학습합시다.  
학교마다 조직체계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기존 갖추어진 체계로 백방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여학단위 간부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자체판단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세로모임은 모든 간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약해내며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시켜낼 수 있는 논의 체계가 될 것입니다. 생활 총화도 함께 하면서 정형화시켜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 ▶ 모든 회의를 시작하기 전 10분 정도 '구독회'를 합시다.
- ▶ 한총련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한 '금요학습제' 원소조화와 주총화회의 나 모범간부총화대회등을 활용합시다.  
(참고 : 한총련 1,2월 사업계획서)

**기층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기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는 그 한 해를 좌우할 것입니다.**

- ▶ 우선은 기층을 구체적으로 실사해 봅시다. 학교마다 과에 여학생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챙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시다. 알고 보면 기층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여학생회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레 속단하고 상황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말고 꼼꼼한 총화와 선식을 통해 식은 지도부를 고민해 봅시다.

충주대에서는 과나 단대 여학생회가 있는지를 선거 후 최근 들어 알게 되었고 비록 여학생회의 구체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혹은 여학생운동이 뭔지도 모르는 여학생회지만 회장님이 직접 찾아가 술도 한 잔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려 한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경북대에는 94년 단대 여학생회가 대거 세워지지 못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총여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노력으로 각 단위 학생회 일꾼들이 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단여건준위'라는 이름으로 속속들이 주체를 세워내고 있습니다.

전남대의 경우에는 작년 '과여발특위'가 정형화되면서 기층을 다시 회복하고 전남대 여학생운동의 조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 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총화를 해서 보문을 통해 모범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골간단위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합시다.**

▶자기 단위 조직력에 맞게끔 진행해 봅시다.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의 만남도 가능할 것이고 단대 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의 간담회 등으로 가져갑시다.

기존 여학생회 단위만이 진행했던 간담회를 골간 학생회간부들 까지 확대해봅시다.

## **III. 대중투쟁 영역**

### **국내 성폭력 특별법 제정(성폭력 파칙 제정)을 위한 투쟁**

작년 한해동안 각 학교 총여학생회에서 핵심과제로 진행한 단위가 많습니다. 전여대협에서 힘있게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시기는 학우들에게 대중적으로 합의하고 알려내는 작업이 진행된 단위가 많습니다. 작년 한해 진행했던 투쟁을 다시 한번 학우들에게 선전해내고 구체적인 모델과 학칙제정이 필요한 이유 등은 보문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대 문제**

아직도 정신대야! 가 아닌 것은 우리 간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 36년간 우리 국민을 학살하고 학대했던 일본 전범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개정안 11조 6항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정부, 일본 정부의 월한 힘이 미치킨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아래 민족,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참여한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됐거나 731부대 생체실험, 살, 고문 강제노동 등 일제 36년 동안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인들의 국내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법 개정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이 명백한 전범 행위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내에서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전범 16명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조치법'이 국제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만큼 그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전 한겨레 신문과 한국일보, 스포츠 일간지에서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국민기금이 정당한 것인 마냥의 선전내용을 일면으로 실는 등 일본의 약삭빠른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겨레 신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감언이설을 실분 일면이 실었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것의 심각성은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행위를 전범으로 부정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을 또 다시 일본제국주의에 판아바리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국제 여론은 한국의 '수요시위'를 국민의 승리하는 투쟁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당국에 거하는 단체의 건물 몇 미터 앞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세우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허나 정작 피해국인 한국정부는 여전히 유연한 자세를 이루고 언론을 통해 재미를 유발하는 꾀리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7년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시기 차곡 차곡 벌여왔던 투쟁을 다시 한번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올 2월 18일 수요시위 300회가 되는 날입니다. 각 단위별로 다시 한번 진행정도를 간부들내에서 학습해내고 학우들에게 선전해내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세웁시다.

## IMF시대의 여성노동자

IMF구제금융은 경제주권을 미국에 넘겨버린 '제2의 국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IMF가 가지는 본질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에 대한 대가로 IMF가 제시하는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조정이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외환이란 당연히 '달러'를 의미합니다. 이미 IMF창립시에 생산과 무역에서 최강의 지위를 확보하게된 미국은 국제통화를 '금'과 '달러'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IMF체제는 미국의 금융자본에 의한 국제금융통화질서를 의미하며 무역 및 자본자유화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적 경제질서를 확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긴급구제금융을 받았어야만 했는가.

각종 보고서에서는 '한국경제의 금융위기는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과 재벌의 금융독점'이라는 진단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은 한 두 개의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기 돈처럼 은행돈을 쓰는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국민의 돈을 담보로 문어발식 투자와 부실한 해외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고, 국제금융을 받는 기업들은 변절한 돈으로 몸 부풀리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들의 부족한 경영과 투자는 쓴 돈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서 논 썰려 준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불어나는 외채의 규모를 국민들에게 속이고 환율상승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갚아야 할 달러 빚은 국민들에게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길거리로 나가떨어지는 국민의 수가 실업자 1인당 부양가족을 1.7명으로 할 경우 3백24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5백만은 족히 될 것이라는 각계의 반응입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가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감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면 남자에 비해 생계에 대한 책임이 덜하고 생산성도 낮은 맞벌이 여성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아이 딸린 사무직 기혼여성이 1차 정리해고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의 사유가 있거나 논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로 여성의 삶을 꺾어오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정규직 중심의 남성 가부장을 보호하면서 여성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노동시장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의 해고는 사회적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기혼여성이었고

통계적으로는 실업자로 규정되기보다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되기 쉽습니다. 정규직 여성들에게도 남성만이 생계 부양자라는 논리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짧아 생산성이 낮다고 트집잡던 경쟁력 논리도 이제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근무연수가 오래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해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버는 남성 가장을 위해 결혼한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본래의역할인 '주부'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남편이나 가족에 의해서가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직장, 여성-가정이라는 성별분업논리는 위험합니다. 이에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직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둘째,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부활함을 의미합니다.

공황과 경제적 위기는 사회를 보수적으로 몰아가고 국가나 자본은 전통적인 성별분업 강화를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사용했던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공황기에도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에도 남성 중심의 편주의적 발상으로 미국의 경제법 213조에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는 공직에서의 고용을 금지한 다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것은 물론 남편이 아닌 부인들의 해고와 삭감과 좌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된 기혼여성은 빚을 어기는 셈이 되었고 이 법률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결과는 일시적인 별거를 통해 해고를 피하려는 여성들과 남편을 버리고 직업을 택하겠다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고 1937년 폐지되게 되었다.

1998년의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방들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감원 1순위 맞벌이 여성, 2순위 두자녀 여성, 3순위 한 자녀 여성, 4순위 임신 여성, 5순위 결혼한 여성...강도 높은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여성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의 양면성을 들 수 있습니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허리띠를 졸라맬 것에 대한 당부에서부터 달려 금 모으기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가계절약으로 집중되며 가계부를 알뜰히 쓰고 좀더 값싼 물건을 구입하며 절전방법, 자금운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실천은 위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강조되는 것은 마치 이것이 바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의 최선의 역할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일하는 여성들의 주부로의 복귀를 부추기는 현상과 맞물려 전통적인 여성역할의 강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불황은 기혼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기대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즉 공식화된 담론은 전업주부일 것을 강조하지만 남성 실업의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은 가족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책임을 던져버리는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성에게 이중, 삼중의 불안과 좌절을 가져오고 가부장에 대한 부조건적 헌신과 순종을 당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가 해고노동자의 0순위가 되려는 본질은 이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노동자와 적극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성차별적 여성 우선 해고를 정당하게 하는 성별분업논리와 남성 생계부양자 논리에 반대한다.
- 기업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경우 대항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노동부는 성차별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자도를 강화하고 비원칙 노동위원회 등에서는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
- 노, 사, 정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통해 고용안정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각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자보선전과 도서관 각 문 선전전을 통해)해내고 투쟁해냅니다.

#참고: 고용평등추진본부 발간 월간 <평등>9호 게재 원고

## IV. 대중 의식화 방도

- ▶과내 여학우들에게 편지나 엽서 쓰기를 제안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풀어봅시다
- ▶일인 하루 하나의 소자보를 쓰는 투쟁을 진행해봅시다. 회의나 교양 후 꼭 격문 형식의 대자보를 써 보도록 합시다.
- ▶그 외 한총련 12월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매우 유용합니다. 대자보 내용은 각이부이는 것까 화요일 도서관을 찾아가 학우들을 만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합니다.

## V. 핵심 사업영역

### 수요 시위

일본은 한국에서 그나마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알고 있는 한겨레 신문을 통해 매국행위를 하게끔 했습니다. 온갖가지 세련된 방법으로 또다시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자면 역사를 오히려 서술하고자 하고, 기필코 책임자의 사죄를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우리 민중과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할머니의 거세 찬 투쟁을 일제는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한 번 막아보겠다는 술책이겠으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날을 세워 적극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2월 18일 300회 수요시위에 대중적으로 참가합니다.

단위 예비대학 등의 일정과 겹친다면 그간의 투쟁을 정리하는 대자보 형식으로 학우들에게 알려 내거나 '나눔의 집'에 엽서를 쓰는 등의 창발적인 투쟁을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 예비대학

2월 중순과 말쯤

※ '여학우 예비대학'을 제안합니다.

각 단위에서 예비대학은 구체적인 자기 대중을 맞이하는 첫사업입니다. 좀 더 창발적인 고민으로 많은 새내기들에게 자주적 삶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대에서 예비대학 전 단대나 과에서 '여학우 예비대학'을 진행했었습니다. 하루정도로 일정을 잡고 강연이나 토론이 중심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나게 서로를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더니 여학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때 새내기들이 일꾼으로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론에 제기 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간부수련회



## VI. 토론

### 예비대학 참고자료



#### “새로 배움터 모범사례”

새터는 20년동안 봉건 반공교육 등의 계도교육 속에서 획일화된 새내기들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는 첫 번째 의식화 장입니다.

선배들이 얼마나 내실 있는 준비로 새내기를 맞이하느냐가 여학생운동 뿐 아니라 학생회, 한총련에 대한 관점, 사회성격에 대한 관점, 통일에 대한 관점 등이 얼마나 건강하게 형성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각 학교 각 단대마다 예비대학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지만 98학번 새내기들에게 건강한 관점을 형성시켜주는 의식화 장에 제출하는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자기 단위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새내기 사업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의와 목표〉

1.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알려낸다.
2. 새내기들을 여학생회 두리로 묶어낸다.
3. 새내기들에게 올바른 대학문화를 알리는 장이 된다.
4. 여학우들의 적극성을 유발시킨다.
5. 과여부장들을 여학생회 두리로 묶어 세우고 과내에서 올바른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6. 여학생회 첫 대중사업으로써 간부들의 일심단결하는 기풍을 세운다.

#### 〈원칙과 방도〉

1. 과여부장의 역할을 높인다.  
—정기적인 여부장 모임
2. 최대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웃으며 준비하기
3. 조직화 방도  
—엽서쓰기  
—전화작업(과여부장이 있는 과는 과여부장이 직접 연락하기)  
—재학생 연락하기  
—초대장 만들기

시간	행사	준비물
10:00	이름표 착용, 조편성, 교가 배우기(세세대 청춘송가), 도급곡 배우기	이름표, 박스, 새벽올림 섭외
11:30~	<b>☉ 입학식</b> ● 교가부르기. ● 회장 인사말 간부 소개 ● 총여학생회장 인사말 총여학생회 간부 소개 ● 공대. 학생회장 인사말 공대학생회 간부 소개	진행 : 부회장  ● 자보준비 —입학식 식순 —소모임 소개
12:00~12:30	수강신청	수강신청 카드, 강의실 자보, 난로 강의실로 옮기기
12:30~1:30	<b>☉ 강의</b> 매스컴을 통해 본 여성문제(총여회장) 발해불 꿈꾸며(조통위) 환상의 여대생(단위회장)	감사 섭외 강의실 정리  ● 점심준비
~2:00	정식시간	김밥(150줄) 오뎅국(짬뽕, 그릇, 수저)
2:00~5:00	<b>☉ 학내 갈고 다니기</b> 1생 경영대 2생 용봉탑...	조교 섭외 용봉탑에 간식 준비 (떡, 수정과, 꿀, 사과, ...)
뒷풀이	최대한 재밌고 새내기 위주로 —맥주, 과자, 김치전, 프랑	



## 외내 성폭력 제정 자료

[동아 총여]성폭력 학칙제정 틀거리입니다.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는 것
2.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이주는 것
3.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것
4. 술자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5.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6. 손이나 몸으로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7.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수행하는 것
8. 사립의 심신상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권유 또는 수행하는 것
9.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나 특권을 권리로 강제 수행하는 것

제 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시간강사, 촉탁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 4조(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 2장 징계

제 5조(교원의 징계) 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 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6조(직위의 징계) 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아학숙 직원 징계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 7조(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체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한다.

제8조(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 9조(징계결과와 공고) 학교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성폭력 상담실

제 10조(상담실 설치)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해당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상담실의 임무) 상담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4.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12조(운영위원회 등)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 3명, 학생 3명, 상담실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실장이 그 의장이 된다.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교 약간 명을 늘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을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과여발 특위 <과여학생회(부)발전 특별 위원회>

여학생운동 10년의 역사를 총화 해보면 전망을 내어오는 어떤 자리에도 과여학생회(부)의 중요성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학생운동의 조직강화와 대중성 확보에는 과여학생회(부)의 강화만이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과여학생회 건설, 강화에 고심하고 방도를 내놓고 있지만 그 맥이 1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선거시기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4기 전여대협에서는 개별적인 여학일꾼들의 고민을 모아 전일적으로 과여학생회(부)를 지도해 나가며 전여대협의 주춧돌인 과여학생회(부) 강화에 대학 일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방도와 대안은 총노선을 통해 시기 시기 제출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제시하기로 하고 1,2월 사업계획에서는 2년간 과여발 특위를 진행해 97년 과여부장들이 98년 각 단대여학생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결의함으로써 모범적인 조직을 건설한 전남대 과여발특위를 모범사례로 제출합니다.

전남대 총여는 96년 1기 과여발 특위를 계승하여 97년 2기 과여발특위를 건설했습니다. 90개가 넘는 전체과에 과여부를 다 건설해야겠다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선 과여부가 있는 핵심 전략과를 선정해 과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간담회를 거쳐 과여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과의 조건에 맞게 과여학생회의 또는 과여부를 건설했습니다.

15개과 정도 결합해 시작한 과여발 특위는 과여부 조사서 과여부장 총화서를 먼저 작성해 일관된 지도보다 과특성에 맞게 하나 하나 세밀히 지도해 왔고 2주에 1번 과여발특위 회의를 개최해 학습, 사업총화를 했으며 단대여학생회의 운영위를 리주로 가지면서 또 한번 총화를 했습니다.

학습은 여학생운동론 같은 딱딱한 것보다 과여부장님들이 대부분 2학년 정도로 이르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후문문화, 미인대회, 광고 속의 성문화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거리로 토론 중심으로 진행했으려 과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여성문제 (특히, 응답페설, 담배 피우는 여학우에 대한 선입견등)을 토론하고 토론 결과나 자신이 느낀 점을 기획거리로 공개하도록 해 과 학우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전남대 과여발특위 모범은 후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전파하기로 하고 우선 각 대학 총여에서는 1,2월 방중기간 과여발특위 건설을 위해 가장 먼저 단위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체 과의 과여학생회(부), 또는 여학생고임이라도 있는지 총화해 보시고 핵심전략과를 단대별로 한두개과 정도만 선전해 간담회를 해보시고 주체가 꾸러지면 책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최대한 친해지면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전여대협의 주춧돌 과여학생회장님(부)을 만나러 갑시다.

## 단여권관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따로 올리겠습니다.